

히루젠의 멸종위기종

히루젠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종에는 매우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도 있습니다.

이 곳에 서식하는 가장 유명한 종 중 하나로 후사히게루리 하늘소(*Agapanthia japonica*)라는 말하다가 혀를 깨물 것 같은 이름으로 유명한 하늘소를 들 수 있습니다. 긴 뿔을 지닌 멸종위기 IA 류에 해당하는 종입니다. 이 하늘소는 옛날에 혼슈와 홋카이도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지만, 서식 환경에 꼭 필요한 초원이 감소함에 따라 개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히루젠 고원은 후사히게루리 하늘소에게 중요한 서식 거점이므로, 이 지역의 습기가 많은 초원에서 자라나는 애기원추리(*Hemerocallis citrina*)에 알을 낳거나 먹이로 삼습니다 고원에서 매년 산불 농기를 시행함으로써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하고 토지가 원래 삼림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일본애호랑나비(*Luehdorfia japonica*) 또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종입니다. 일본애호랑나비는 1년에 1번, 4월경에만 모습을 드러내어 ‘봄의 여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나비는 잡초가 적은 낙엽활엽수림에서 서식합니다. 히루젠에는 저목림작업으로 알려진 삼림 관리의 관행이 있기에 이러한 서식 환경이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저목림작업이란 나무를 솎으로 이용하기 위해 베어 내고, 나무를 그루터기에서 다시 성장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이사이에는 잎이나 부러진 가지를 모아서 연료나 비료로 사용하고 잡초를 제거하기에 일본애호랑나비에게 이상적인 환경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또한 히루젠의 수생 환경에는 세계에서 가장 멸종위기에 처한 담수 이매패의 일종인 강진주조개(*Margaritifera laevis*)와 같은 희귀한 종이 서식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서식 환경의 파괴와 다른 인적 요인으로 담수 이매패의 수는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급감했습니다만, 히루젠의 텐다니가와와 오히라가와에는 지금도 강진주조개가 건강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알갱이 모양 물질을 여과하고 영양소를 방출하며 퇴적물을 섞어서, 강에 서식하는 다른 종을 위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카야마현에서 보실 수 있는 2,836 가지 관다발 식물 종 중에서 약 2,000 종이 히루젠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고유종, 즉 이 지역 외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종입니다. 그중 하나가 옛날 현지 농가에 농업과 일상생활을 위한 물을 공급한 작은 관개 용수로에서 볼 수 있는, 꽃을 피우는 수초인 히루젠 매화마름(*Ranunculus nipponicus* var. *okayamensis*)입니다. 그 외에는 1930년에 히루젠에서 처음으로 채집된 사초의 일종인 히루젠 사초(*Carex aphyllopus* var. *impura*)도 있습니다.